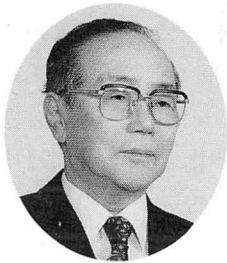


새해의 바람



안승렬
(노인유리원장)

해마다 바뀌는 해지만 여느 해와는 달리 의미가 가중된 해 바뀜이다!

이 시점에서 뒤돌아 보면 역사란 상하중횡, 동서남북, 유형무형의 크고 작은 단절의 벽을 차례로 무너뜨려온 과정이라 해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지난 40여년동안 윤리도덕이 만신창이로 된 것은 지도층의 책임이 크지만, 일상적 주변의 작은 일에 등한시 한 일반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전통적으로 강했던 가족중심주의가 인간으로 성숙시켰을 뿐 핵가족제도가 급격히 확산되는 대비책이 미숙하여 오늘날 많은 문제점을 양성하는 데 대비책이 부족하였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은 데도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버스 정류장에서 두 사람만 돼도 열을 지으며, 버릇없게 구는 남의 자녀를 내 자식처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신변의 작은 공적(公的)관여가 바로 윤리의식을 굳히는 강력한 콘크리트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과거의 빈곤과 미래의 불안 때문에 무작정 더 갖고 보려는 소유가치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뜻과 보람을 찾는 존재가치에 의식전환

이 이루어져야 하고, 강산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아름다울 것이고,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의 첫 해 첫연대(年代)의 첫 날인 것이다.

올해는 우리가 띠로 부르는 해로 돼지띠가 되는 을해(乙亥)년이다.

돼지는 모든 우리에게 실로 친숙한 가축이다. 그 친숙을 넘어서 전국신화에도 나오고, 인물 탄생에 꿈에도 나오고, 오늘날 모든 집의 식탁에도 나오니 그래서 가지가지 사연을 주었으며, 간혹 언짢은 표현이 있어 우선 대목을 훑어보면 「돼지 뒷다리」 이는 어긋나고 비뚤어진 것이다. 속 썩인다는 표현의 말투이고 「돼지같은 놈」, 욕심쟁이, 미련한 놈, 똥똥이를 가리키는 낮춤 말씨에다 「돼지 먹 따는 소리」,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우리는 종종 듣는 말씨가 있었다.

지금은 돼지를 기르는데 기업화 되었지만, 50년 전까지만 해도 시골은 물론이고 서울의 교외에서도 한 집건너 있을 만큼 돼지를 길러 집안 음식찌꺼기와 근처 음식점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걷어 돼지 먹거리로 써서 집안 살림에 보탬을 주었다.

현대의 과학 첨단 문명시대

꿈이 소원을 뜻한다면

돼지 꿈은 인간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며 어미돼지는 이런 면에서 부를 상징하고
어미돼지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느긋하게
잠든 모습 그것이 평화이고 풍요이니까
「가화만사성」이 아닌가?

에서도 밤에 돼지꿈을 꾸었다 하면 희망과 풍요의 맘씨로 기분전환을 가져오고 있음은 우리의 오랜 습성이 되어있다.

돼지가 새끼를 낳을 적에 이른바 무너리(태로 낳는 짐승의 맨 먼저 나온 새끼)는 서열로 보면 어미 돼지 뱃속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나온 개문자(開門子)이니 선구자요 개척자요 인도자건만 몸집은 제일 작아서 힘이 약해 젖도 제대로 못찾아 먹는 생태이고 자연적인 성장과정을 겪고 있으나 인간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몸가짐으로 약자 “무너리”가 있다.

천신만고 끝에 성공한 선배를 팔세하는 후배를 볼때면 “무너리” 생각을 하게 된다. 위에서 돼지꿈 얘기를 잠깐 썼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용꿈이 첫째이고 돼지꿈이 둘째에다 똥꿈이라 하였는데 이것 또한 출세, 영광, 부자, Sex임은 마찬가지이다.

꿈이 소원을 뜻한다면 돼지꿈은 인간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며 어미돼지는 이런 면에서 부를 상징하고 어미돼지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느긋하게 잠든 모습 그것이 평화이고 풍요이니까 「가화만사성」이 아닌가?

돼지끼리 싸움하는 모습을

보게되는데 이것은 정작 해치고 죽이는 작태가 아니며 장난이니까 인간들은 한 번 돼지의 생태에 가늠있는 바램일 뿐이다. 옛날부터 우리가 흔히 「돼지 같은 놈」이라는 낮춘 말씨가 있으나 비가 내릴 것을 아는分別력과 게걸스럽게 먹는 것 같아도 과식은 절대 안하고 자기건강을 원초적으로 관리하는 본성이 있으며 예전 하늘에다 제사를 올릴 때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나 조상께 제사를 지낼 때의 돼지머리를 보듯이 옛날부터 신성함까지 결들인다면 희생물의 역할까지 있었던 돼지는 인간생활에 절대 필수적인 대상임을 짐작케 한다.

금년부터는 국제화 세계화가 한가닥 구호에서 짜임새 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새해이다. 국제화 세계화를 “비전”으로 앞으로 세월을 보내는 데는 디딤돌로서 하여야 할 일이 더

미더미로 쌓여있다.

이에 전제로 첫째가 「가정윤리」가 앞서야 하고 다음으로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는 안간힘을 삼가하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무모한 경쟁심과 남보다 돋보이고 싶은 허영심을 가정에서부터 추방하며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남보다 많이 가져야 한다는 허영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사치와 낭비가 된다는 깨달음이 곧 절제이다.

오늘의 상업주의 체제하에서는 사치, 낭비를 강요당하고 있고 요란스러운 광고에는 소비자위치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수요를 강박 당하는 것을 슬기롭고 용기있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옛부터 동방 예의지국의 나라임을 지녔던 전통을 알뜰하고 살뜰하게 가꾸어서 후세들을 이끌어감이 당면한 일이고 새해의 숙제로 삼아야겠다. 眞影